



새 앨범으로 돌아오는 BTS 뜨거워지는 병역특례 문제

내달 10일 '9년 활동 총망라'하는 신곡 공개

올해 데뷔 10년 차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6월 새 앨범을 내고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한다.

방탄소년단은 과거·현재·미래로 나눈 3개의 CD로 구성하는 앤솔로지(Anthology) 음반 '프루프'(Proof)를 6월 10일 선보인다. 세 곡의 새 노래를 포함해 10년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곡으로 채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5일 "2013년부터 쉽 없이 달려온 방탄소년단이 6월13일 데뷔 9주년을 맞는다"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아미'(팬덤) 여러분 덕분에"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은 지난해 9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앨범에 실렸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 이후 9개월 만이다. 그런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2020년 2월 내놓은 4집 '랩 오브 더 솔:7' 이후 정규 앨범을 내지 않아 이번 앨범으로 향후 활약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앨범은 방탄소년단이 10년 차 아티스트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지금,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하고 완성한 앨범"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활동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점이 모인다. 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 또 다른 주무부처와 여론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사람냄새 물씬...재미·공감·감동 다 잡았다

강호동·이용진·양세찬 MC 맡아 성공한 사람들 만나 인생 이야기 유튜버·맛집 사장 등 폭넓게 출연 필리핀·대만 등 OTT 방영 앞뒤

"인간들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 깨비 깨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튜디오에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왓차 오리지널 콘텐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의 진행자 강호동, 이용진, 양세찬이다. 저마다 머리에 뿔이 달렸고, 눈썹이 짙은 얼굴이 평소 모습과는 다르다. 인간의 지혜를 빼앗으려는 도깨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분장에 한껏 '힘'을 썼다. "인간 세상의 신문을 만끽해 보자"며 한껏 설정에 몰입한 세 도깨비의 토크 한 판은 그렇게 시작됐다.

● 화기에 애한 현장, 강호동의 힘

콘텐츠는 도깨비로 변신한 세 MC가 성공한 사람들 만나 그들만의 노하우와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쇼다. 지난달 29일 촬영한 '유튜버 특집'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윤기, 유튜버 썬양(박정원)과 오징(오병민)이 게스트로 나섰다. 강호동과 이용진, 양세찬은 이들과 관련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도 하며 4시간가량 녹화를 진행했다.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강개비' 강호동의 몫이다. 특유의 '오버 액



왓차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의 진행자 이용진, 강호동, 양세찬(왼쪽부터)이 도깨비로 분장한 채 익살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 |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션'에 게스트와 스태프가 웃음을 터뜨렸다. '용개비' 이용진은 "토크 저격수" 출연자들에게 말장난을 걸며 분위기를 풀어준다. '양개비' 양세찬은 "공감의 귀재"이다. 유튜버 영상을 미리 시청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려운 질문에는 답 안 해도 된다"며 게스트들을 다독였다.

이날 제작사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관계자는 "이들은 흐름이 끊기는 걸 싫어해서 촬영 내내 쉬지 않고 '논스톱 토크'를 펼친다"며 "덕분에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매회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

다"고 설명했다.

● "꿈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콘텐츠는 3일부터 왓차를 통해 공개 중이다. 조만간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DB)의 새 OTT 플랫폼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통해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권에도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방송 채널에서 방영한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만큼 한국적 요소를 강조한다고 제작진은 말한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구전설화 속 도깨비 이미지를 차용하

고, 마루와 마당이 있는 기와집을 세트 로 구현했다.

게스트 구성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1회 '골목장사의 신'에 유명 음식점 대표들을 초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섭외했다. 연출자 엄진석 PD는 5일 "각자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유쾌하게 전달하는 세 '도깨비'들의 시너지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전종서, 그녀의 아우라에 세계가 빠져든다

넷플 주연작 '종이의 집...' 6월 공개 할리우드 진출작 '블러드 문' 공개봉 "에너지에 매료" 외신들 호평 잇따라



전종서

배우 전종서가 세계무대를 겨냥하며 연이어 주연작을 선보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과 할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블러드 문'이다. 우선 6월 24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

역'을 먼저 공개한다. '오징어게임' 이전까지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시리즈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스페인 작품의 리메이크작이다.

통일을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현재 전라가와 강도들이 벌이는 인질극에서 전종서는 강도단의 일

원 도쿄 역을 맡았다. 원작 속 캐릭터 가운데 가장 과감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와 전종서 특유의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영화 '블러드 문'을 하반기 개봉한다. 데뷔작인 2018년 영화 '버닝' 이후 할리우드 러브콜을 받아 2019년 촬영한 작품이다. 위험한 힘을 이용해 새로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해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일찌감치 외신의 호평을 이

끌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에너지에 압도당했다"며 전종서의 연기를 극찬했다. 스페인 에스피노사는 "그의 아우라에 매혹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종서는 2020년 넷플릭스 영화 '쿨'을 함께 하며 사랑을 쌓은 이충현 감독과 다시 협업한다. 이 감독의 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발레리나'에 출연한다. 이에 앞서 2015년 국내의 우수 영화제의 트로피를 휩쓸었던 연인의 단편영화 '몸값'을 드라마화하는 티빙의 동명 오리지널 시리즈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100% 국산

저온농축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